

전반적인 옥수수 시세는 안정세이나 대두박 시세는 강세 전망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 과잉공급기조의 미산 옥수수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미산 옥수수시세는 10월 들어서도 여전히 바닥세를 나타내고 있다.

시세 폭락을 주도해온 미국산 옥수수의 금년도 생산량은 지난해의 이어 풍작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 농무성이 추정한 금년도 미국의 옥수수생산량은 2억 880만톤으로 사상유례없는 대풍작을 기록했던 지난해의 수준에는 못미치지만 평년작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금년도 생산량이 지난해이 2억 2,518 만톤에 비해 7.3%나 감소했음에도 금년도 미국의 옥수수 총공급량은 3억 1,145만톤으로 지난해의 2억6733만톤에 비해 16.5%나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산 옥수수의 총공급량이 크게늘어나고 있는 것은 지난해에서 넘어오는 이월재고량이 계속 누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금년도 기초재고량은 1억 257만톤으로 지난해의 기초재고량이 4186만톤이었던 것에 비하면 무려 2.45배나 늘어난 셈이다.

미국의 옥수수 재고량이 최근 급격히 늘어난 것은 지난 83년 미국이 PIK 정책을 시행하자 수입국들이 자국내 농업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막대

한 투자를 하면서, 수입선을 아르헨티나,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으로 다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경쟁수출국들인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등은 농업생산에 집중투자를 하면서, 수출드라이브정책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갔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과거 농산물 수입국이던 EC와 중공 등이 수입국으로 돌변하였고 소련 등 대수요 국들의 곡물수요도 해마다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한편 그동안 옥수수에만 의존하던 사료곡물수입국들이 점차 옥수수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옥수수를 대체하는 소맥과 수수 등으로 다양화시켜 나가면서 소맥의 주요 수출국들인 호주, 캐나다, EC 등도 미산 옥수수시장을 잠식해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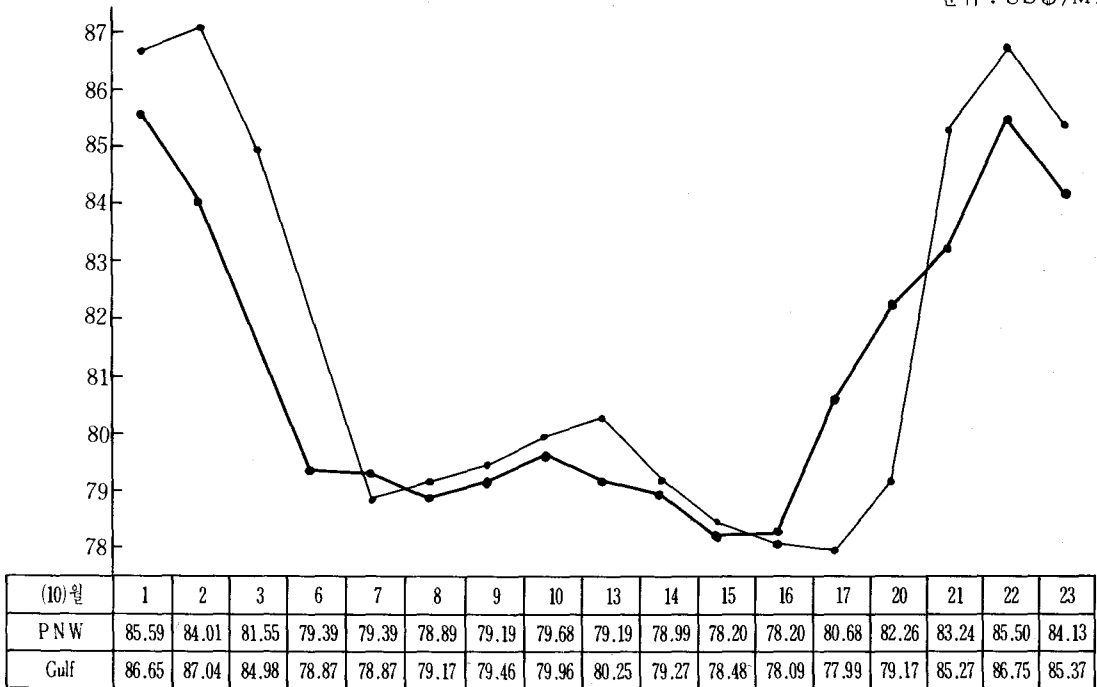
이와 같은 사료곡물수출시장과 수입시장의 환경변화로 인해 미산 옥수수의 재고수준은 최근 수년간 계속 증가상태를 보여왔고, 미산 옥수수시세는 사상 최저수준에 육박하는 C & F 75불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 재고누증현상 심화

미국산 옥수수의 총공급이 16.5%나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내 옥수수 수요는 겨우 2%

1. 옥수수 시세동향

단위 : US\$/MT



수준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과거 옥수수를 이용한 석유대체용연료산업 역시 최근의 저유가로 인해 이용이 감소하고 있어 미국내 옥수수 수요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USDA에서 전망하는 미국의 수출전망역시 3,556만톤으로 지난해의 3,152만톤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미국산 옥수수의 총공급수준이 16.5% 증가할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총수요는 4.1% 증가에 그쳐 내년도로 넘어가는 기말재고량은 더욱 커져 1억 3,998만톤에 이르며 지난해의 1억 257만톤에 비해 36.5%나 증가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10월 미산 옥수수시세는 평균 뷰셀당 235 센트를 나타냈으나 금년에는 대략 155~180 센트 수준을 보여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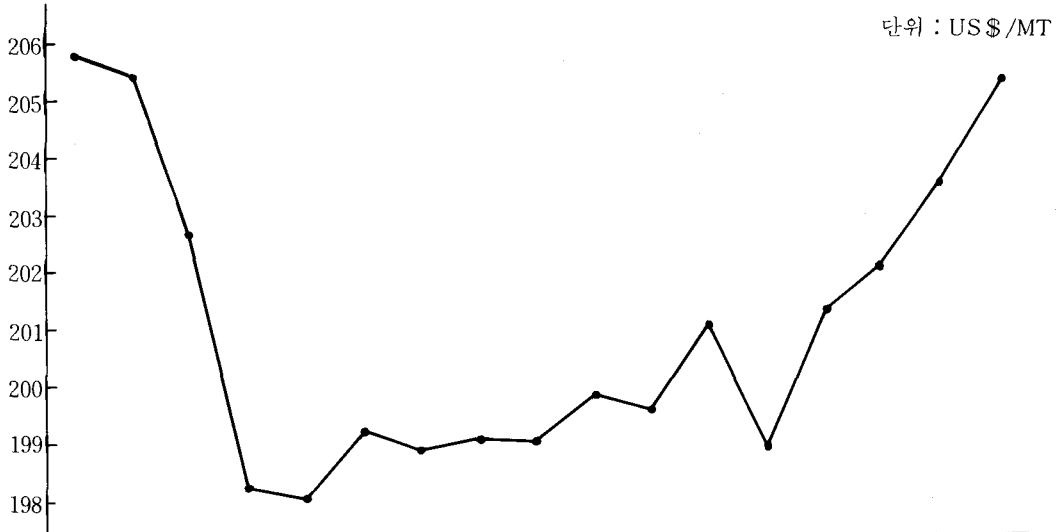
한편 전세계적으로 보면 금년도 총 세계옥수수 기초재고량은 1억 2,250만톤으로 지난해의 6,

050만톤에 비해 2배가까이 늘어났고 세계 전체 옥수수생산량은 4억 7,870만톤으로 생산량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총공급수준은 여전히 과잉현상을 면키 어렵게 된다. 게다가 세계적인 옥수수수요 역시 크게 늘지 않아 총 기말재고수준은 1억 5,860만톤으로 지난해의 1억 2,250만톤에 비해 약 29%나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미산 옥수수시세는 세계적인 옥수수 수급안전을 통해 안정적인 가격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수출경쟁 지속 전망

향후 안정적인 가격권내에서 가격회복이 전망되고 있는 옥수수의 금년도 국별 생산량을 보면 심한 기복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최대 수출국인 미산 옥수수가 7.3% 감소

2. 대두 시세동향



(10)월	1	2	3	6	7	8	9	10	13	14	15	16	17	20	21	22	23
C&F 가격	206.80	206.43	202.67	198.26	198.07	199.27	198.90	199.08	199.08	199.82	199.64	201.10	198.99	201.38	202.12	203.68	205.33

할 전망인데 반해, 주요경쟁수출국인 아르헨티나는 1.6%,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2.5%, 중국은 11.3%씩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한발로 인해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홍수피해로 인해 생산량이 크게 줄었던 중국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사상 최대의 생산량을 기록했던 태국산 옥수수 생산량은 420만톤으로 지난해의 520만톤에 비해 무려 19.2%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금년 태국 옥수수생산 지역이 극심한 한발로 인해 피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 세계 최대의 수입국이었던 소련의 옥수수생산량은 최근 해마다 증가추세를 나타내어 금년도에는 1,500만톤으로 지난해의 1,350만톤에 비해 11.1%나 증가하였다. 따라서 소련의 옥수수수입량이 감소하면서 그동안 소련에 대한 옥수수 수출에 주력해왔던 아르헨티나 등이 동남아시아 지역인 일본, 대만, 한국 등으로 수출선을 전환

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남아프리카, 중국, 태국 등 옥수수 수출국들 역시 일본, 대만 등과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동남아시아개척을 위해 수출드라이브정책으로 미산옥수수에 대항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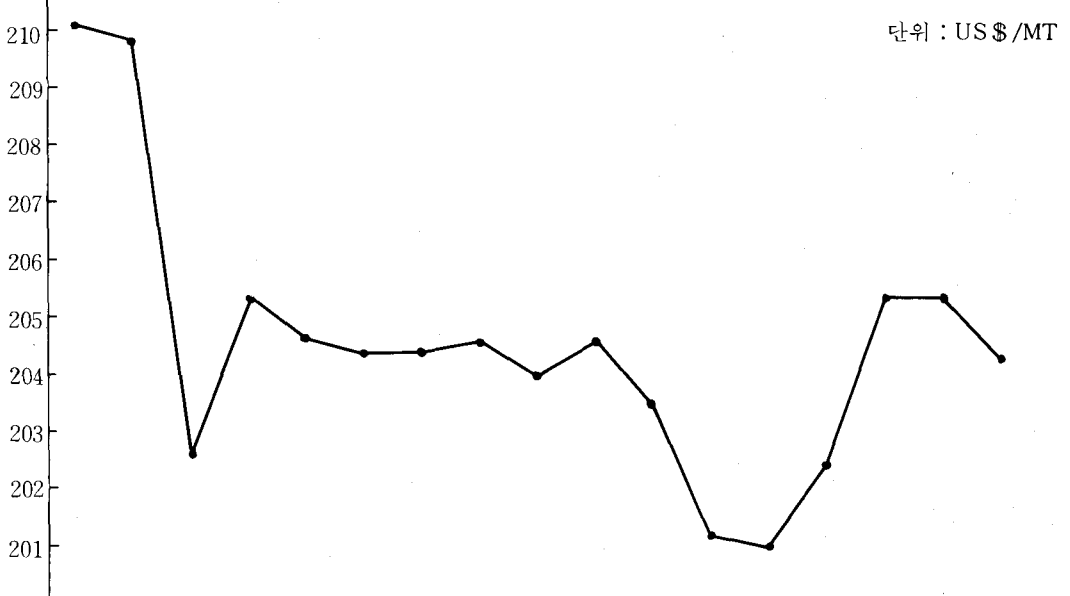
그러나 최근 미산 옥수수가 점차 가격하락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면서 이들 수출국들의 수출드라이브정책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동남아시아를 놓고 태국, 중국, 미국의 옥수수 수출경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 대두시세 역시 하락

옥수수 가격의 하락과 마찬가지로 미국산 대두 가격 역시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년 초 C & F 톤당 230불수준에서 시세가 이루어지던 미산 대두시세는 미국의 대두수급호조에 힘입어 최근 200불대를 하회하고 있다.

미국의 대두수급현황을 보면 금년도 미국의 대두생산량은 5.421톤으로 지난해의 5,712만톤에

3. 대두박 시세동향



(10)월	1	2	3	6	7	8	9	10	13	14	15	16	17	20	21	22	23
C&F 가격	210.06	209.84	202.67	205.32	204.66	204.44	204.44	204.66	204.00	204.55	203.45	201.13	200.91	202.23	205.32	205.32	204.22

비해 5.1%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옥수수과 마찬가지로 재고수준은 1,459톤으로 지난해의 860만톤에 비해 69.7%나 증가하고 있어 전체 총공급수준은 지난해보다 4.7%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국내수요와 수출수요로 구성되는 총수요량은 지난해보다 2.6%밖에 증가하지 않고있기 때문에 내년도 기말재고는 11.9%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0월 미산 대두시세는 뷰셀당 510센트였던데 반해 금년에는 450~490센트수준에서 가격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대두의 금년도 기초재고는 다소 증가하였고, 생산량도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기 때문에 수요가 다소 늘어났다 하더라도 옥수수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대두의 기말재고는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옥수

수가 과잉공급과 재고누증으로 장기적인 안정세가 전망되는 것 처럼 대두 또한 장기적인 안정세가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대두박의 경우 지난해부터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공급에 비해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기초재고는 지난해보다 감소하였고 금년중 생산이 다소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수요량의 증가에 못미치기 때문에 결국 금년도 기말재고는 지난해보다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대두박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금년도 미국의 대두박가격은 솔톤당 140~165볼로 지난해의 154.⁹⁴과 비슷한 가격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옥수수, 대두시세와는 달리 강세가 전망되고 있다.

제일바쁜사람 : 담배를 피워물고, 왜(?) 담배를 피울까 생각하는 사람